

한級の 幽情이 넘치는 그림을 남길만한 作家는 그리 흔한 것이 아니며 古藍의 作品中에서도 佳作中の 佳作이라고 할만하다. 德壽宮美術館이 所藏하고 있는 古藍의 水墨小品들, 例를 들면 「灑北葯庫」 「溪山苞茂」 「二兄寫山相」 等の 筆致는 이 翎毛圖와 相通하는 素描風의 作品이며 비록 이 作品에 欸識은 남기지 않았드래도 「古藍詩畫非直當世寡儔, 可以 上下百年論也」라고 歎息한 壺山居士의 말대로 果然 古藍이 아니고는 그 누가 이 멋진 그림을 남겨 놓을 수 있었을 것인가, 가로 四〇cm 세로 二七·三cm의 小幅·그림의 왼쪽으로 三分之一의 部分에서 素紙를 이었 고 그림은 이은 종이에 그린 것이며 紙質은 「灑北葯庫」와 同質로 보여 진다.

### 在日高麗梵鐘의 一例

黃 壽 永

在日鐘에 對하여서는 寺院 또는 個人所藏을 막론하고 日人學者에 의 하여 調査發表된 바 있다. 그러나 日帝期에 搬出되어 個人에 秘藏된 小藏에 있어서는 아직도 新例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紹介하는



一口는 筆者가 一九六二年 春에 東京에서 過眼한 것이므로 出土地나 傳來經緯는 밝힐 수가 없다. (註) 全高二五cm의 小鐘으로서 龍紐는 缺失되었으나 甬筒(高五cm)은 남아 있다.

鐘身에는 九乳(蓮花座)의 四乳廓(雷紋帶)이 있고 上下帶에는 唐草文(珠文帶)이 彫刻되었으며 飛翔形의 合掌天人과 圓形蓮花紋撞座가 鐘腹에 交代되어 있다. 銘文으로서는 乳廓下에 縱書二行으로 「施主降魔」 「住老大雄」라고 陰刻(字大一·五cm)되어 있을 뿐 年代가 아니보이나 上帶頂端에 立狀蓮花紋이 돌려 있고 乳廓이 上帶에서 分離된 手法 등에서 미루어 高麗下代의 作品으로 推定되었다. 出土品으로서 全面에 青鏽가 덮혀 있으며 龍紐이 되는 損傷이 없는 佳作이었다. 上徑一〇·五cm 下徑一四·五cm 厚一·七cm

(註) 이 小鐘은 日帝時檢事長으로 있던 日本人岡本正明이 入手 搬出한 것이라고 하는데 李朝佛畫一幅(麻布彩色)의 藥師立像으로 幅七五×長一三五cm이며 「信士康亦俊 信士康孜俊」의 人名이 있다. 과 더불어 그의 未亡人이 保管하던 最後의 二點이라고 한다. 呼價는 鐘만 十萬圓. (一九六二·三·八調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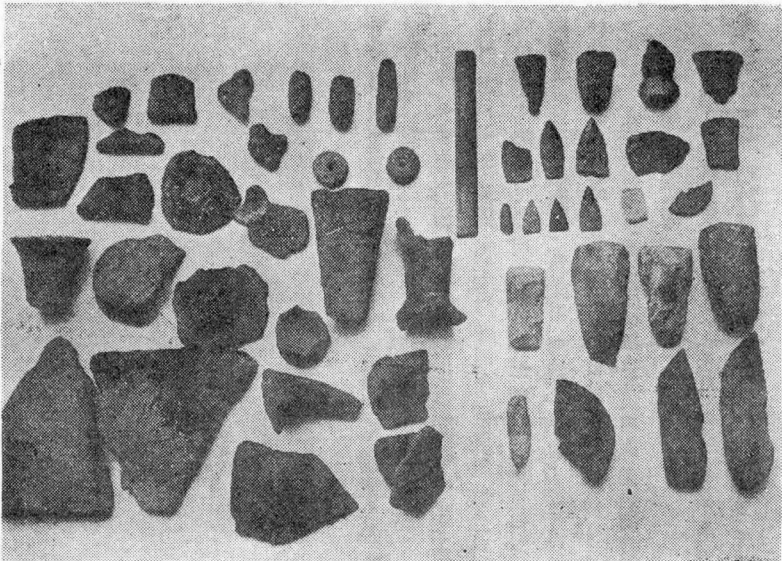
### 大邱市山格洞 先史遺蹟

尹 容 鎮

一九六二年 六月 十四日 부터 數次에 걸쳐 慶北大學校 西北卒 一km 地點에 位置하는 燕巖山 東南傾斜地 一帶에서 金石併用期及 그 以前에 屬하는 石器類及 土器類가 砂汰로 말미암아 露出되어 있는 것을 採集하였다.

燕巖山은 琴湖江과 大邱市를 通過해서 흐르는 新川과 合流하는 東便端에 位置하고 있으며 對岸의 北便端은 過去 黑耀石 等の 石器와 土器의 出土로 紹介된 砂山丘陵이 있고 南쪽은 大邱가 있는 盆地이다.

이곳에서 採取되었던 遺物種類를 보면 有溝鑿形石斧가 石器類가운데 가장 많아 完成品 未完成品은 各種이 있다. 또 少量이나마 石鏃과 半月形石刀片 及 蛤刃石斧, 石製劍把頭飾, 各種祇石, 小形單刃石斧, 紡錘車片 등이 있고 土製品類에서는 一般으로 變化가 적고 口緣部에 帶가 있



의把手가 附着되었으리라 보이는데 赤褐色類의 把手가 더 많다.

遺物の 性格을 보면 有溝鑿形石斧類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며 極東地方의 初期農耕과 關聯이 있는 石器이나 石鏃은 半島各地域에서 많이出土되는 下底部가 凹型인 것이 하나도 發見되지 않고 出土例가 드문 偏平三角形이 많다. 이것은 全南小島에서 靑銅鏡과 함께 出土되었다는 石鏃(古文化綜鑑二)과 같은 型으로서 左右로 날이 세워져 있고 下底部는 垂直으로 잘려 있다. 石劍柄部片으로는 二段柄式과 一段柄式이 採取되었는데 이것은 大邱支石墓出土石劍과 時期的으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半月形石刀片은 有孔, 無孔의, 半月形單刃과 兩刃으로 된 것이 있다. 蛤雙石

는 것과若干 外反한 廣口底平의 無文土器와 高坏類가 가장 많으며 그外少量의 網錘及 紡錘車及 打型文灰色土器가 있다. 土器類에 있어서는 表面이 赤褐色인 것과 赤色, 黑色의 三種이 있는데前者는 胎土에 굵은砂粒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口緣部에 帶가 있는 것이 많다. 赤色 黑色은 精選된 胎土에 若干의 모래가 함유되어 있을뿐이고 口緣部가 外反한 것이 많다. 또 이들 土器에는 牛角形

斧는 雙部外가 全部整理되었고 單刃石斧는 小形으로 剝片을 이용 打整하여 刃部를 잘라 使用했다. 三種은 土器가운데 赤褐色의 것은 手製의 粗雜함이 나타나고 이에 對해서 赤, 黑色土器는 轆轤를 사용한 것이었다. 이들 相互間에는 器型에 있어서 別變化가 없고 製作法에 있어서 서로 다를볼 때 赤褐色에서 赤, 黑色으로 移行發展한 時代의 差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關係는 앞으로 遺物層의 層位關係를 調査하면 밝혀지리라 본다. 容器外의 土製品 가운데는 前述한 網錘와 紡錘車인데 여기에 또 付記한다면 十字形網錘가 採取되었다는 것이다. 이 遺蹟에서 出土되는 遺物の 量과 種類의 多種多量함과 性格으로 보아 大邱地方에 散在하는 南方式支石墓를 爲始한 石器文化와 이것에 隣接해서 散在하는 古墳文化를 連結시켜주는 좋은 資料가 되리라 생각한다.

### 新羅紋樣博 二例

韓 炳 三

古美術品 展示會 關係로 獨逸 프랑크푸르트市에 滯留하는 동안 그곳 工藝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羅代紋樣博 두個를 볼機會가 있었다. 完全한 것이 아니고 缺損이 甚한 破片들이었으나 彫刻된 紋樣이 特異하여 여기에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 一、樓閣紋博

灰黑色 長方形인데 前面의 높이 三·五cm 後面의 높이 五·五cm 幅一·七cm 現長 一·七cm이다. 이와 같은 實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後面의 높이가 前面보다 二cm나 높아서 若干의 傾斜가 지어 졌는데 이런點으로 본다면 이것이 壁博이라기 보다는 어떤 特殊한 建築物에 使用되었던 것으로 推測되나 正確한 것은 알 수 없다. 前面의 높이 二·七cm 길이 七cm의 正面三間單層의 佛閣으로 보이는 樓閣이 있고 그 背景에는